



렌즈에 담긴 삶과 자연의 순간들

'하얀 소'의 해, 2021년 신축년(辛丑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흰색은 모든 빛을 반사해 아무런 색도 없는 무채색을
말합니다. 순결, 단순, 순수, 깨끗함 등의 느낌을 주며 청결,
위생, 정직, 고독의 의미도 있습니다.
새해에는 코로나19의 검은 터널을 빠져나와 순백의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독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글 전수영 기자

눈사람

12월 14일 강원 춘천시의 한 아파트 화단에
놓인 눈사람이 한파 속에 긴 겨울밤을
지새우고 있다.

양지웅 기자





한파가 그린 추상화

한파가 기승을 부린 12월 15일 경기도 안산시 대부도의 갯벌이 얼어붙어 추상화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다.

홍기원 기자



물안개

한파가 몰아친 12월 16일 강원 춘천시 소양강에 물안개가 피어오르고 있다.

양지웅 기자



겨울왕국

제주도 산지에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12월 14일 한라산 1100고지 습지를 찾은 탐방객들이 겨울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박지호 기자



길게 드리운 그림자

12월 15일 서울 강서구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 마당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지고 있다.

김도훈 기자



계속되는 코로나19 검사

12월 17일 광주 북구 선별진료소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검체 채취를 하고 있다.

박철홍 기자



방역복 입은 수험생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일인 12월 3일 인천
부평고등학교에서 방역복을 입은 수험생이 시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윤태현 기자



→
“약 400년 만입니다”... 목성, 토성 대근접
 12월 21일 오후 6시 20분께 경남 밀양시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에서 촬영한 목성과 토성의 대근접 사진. 사진상 오른쪽 윗부분이 토성이다. 이번 목성과 토성 대근접은 1623년 이후 397년 만이며 다음 대근접은 오는 2080년 3월 15일이다. 촬영 장비는 망원경 TOA-150B, 카메라 ZWO ASI294MC PRO.
 [밀양아리랑우주천문대 제공]



↓
불 밝힌 성탄 트리
 12월 5일 저녁 서울시청 광장에 설치된 성탄 트리가 불을 밝히고 있다. LED 조명등으로 치장된 성탄 트리는 전체 높이 20m, 밑지름 8m 크기로 다양한 크리스마스 이미지를 표현하는 디지털 트리로 만들어졌다.
 한종찬 기자



↑
수도권 2.5단계, 거리두기
 정부가 본격화된 코로나19 3차 대유행에 대응하기 위해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지난해 12월 8일부터 3주간 2.5단계로 격상했다. 사진은 360 카메라로 촬영한 이미지 70장을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합성 및 편집한 명동 거리 모습.
 김도훈 기자

→
떨리는 순간
 12월 17일 강원 춘천 봉내체육관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있다.
 양지웅 기자

